

懷月の 傾向小説에 對하여

—「開關」誌 發表分을 中心으로—

尹 明 求*

1. 序 言

懷月 朴英熙는 韓國現代文學의 變遷過程을 직접 體驗하면서 살다 간 詩人이며 評論家이자 小說家였다.

1901年 서울 西大門 天然洞 69番地에서 태어난 그는 中産層의 엄격한 家庭에서 자라, 培材中學에서 八峰과 더불어 修學하였으며, 1920년에 卒業한 후 渡日하여 東京正則英語學校에 다니다가 가정사정으로 翌年 겨울 歸國하였다.¹⁾

懷月은 渡日前부터 「薔薇村」同人으로 參與한 바 있으며, 1921年 5월에 나온 「新青年」純文藝革新號에 羅彬과 함께 同人이었다. 1922年 1월에 「白潮」가 創刊되었을 때 盧子泳·朴鍾和·羅彬·李相和·玄鎮健·洪思容·安碩柱 등과 함께 同人이 되어 詩를 發表하였다.

그는 1924년에는 玄哲의 뒤를 이어 「開關」誌의 文藝擔當 編輯人이 되어 小說과 評論을 同誌上에 發表하였다.²⁾

한편 懷月은 PASKYULA의 한 멤버로, 1925年 7월에는 KAPF組織에 參與하여 同中央委員이 되기도 하였고, 「中外日報」文藝部長을 거쳐 「新幹會」幹部가 되어 所謂 「프로」文學의 理論의 先鋒將이 되기도 했다. 1931年, 1934年 兩次에 걸친 KAPF檢學旋風에 걸려 服役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이에 懷

* 仁荷大 教授(博士課程, 國文學專攻)

1) 金八峰: 韓國文壇側面史 4回(「思想界」1956. 11) 參照

2) 「朝鮮文壇」7號(1924. 4)에 「文士들의 이 모양 저 모양」에는 “開關社에 자주 드나드는 모양이라”는 不分明한 記事가 있다.

月は 心境의 變化를 일으켜 轉向했으며, 1939년에는 「朝鮮文人協會」 幹事が 되어 日帝에 協助하는 新體制文學에 加擔하기도 했다.

解放과 더불어 그는 民族反逆者名單에 오르기도 했으며, 한때 서울大學校 師範大學에서 講義를 맡은 적이 있고, 1950年 拉北되었다.³⁾

以上の 略歷에서 알 수 있듯이 懷月은 韓國現代文學의 主流를 몸소 타고 살아온 사람이다. 詩에서 小說로, 그리고 다시 評論으로 文學의 主要 장르를 고루 執筆하였으며, 「白潮」派의 浪漫主義에 몸을 담았다가, 「프로」文學의 最一線에서 筆鋒을 휘둘렀고, 다시 日帝에 協力하는 新體制文學에 끼어들었던, 그야말로 變身에 變身을 거듭한 文人이었다.

이러한 變身の 生涯 속에서도 懷月은 八峰 金基鎮과 함께 우리 文學에 社會意識을 高調시킨 「프로」文學의 代表的 理論家로서 「프로」文學의 盛衰와 함께 國文學史에서 論議의 對象이 되어 왔다.

本稿에서는 「프로」文學의 代表的 理論家로 成長하기 전, 浪漫主義에서 脫皮하여 「藝術을 위한 藝術」에서 「人生을 위한 文學」으로 轉換하는 過程에서의 傾向的 性格을 띠고 있는 小說들을 對象으로, 그 傾向性的 性格을 考察하고자 한다. 즉 浪漫的 詩에서 變身하기 始作하여 「프로」理論이 되는 過程에서 發表한 小說을 檢討하여 懷月의 傾向小說의 特徵을 把握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本稿의 對象으로 하는 小說은 KAPK結成 以前の 作品으로 制限하며, 이와 같은 制限은 目的意識下에서 創作된 「朝鮮之光」과 같은 雜誌에 發表한 小說들보다는 懷月의 個人的 特色을 발견할 수 있어서 그의 文學觀의 變貌樣相을 찾아 볼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開關」誌에 發表된 懷月의 小說로는 「愛의 挽歌」「結婚前日」「二重病者」「戰鬪」「貞順의 실움」「사냥개」「피의 舞臺」「事件」 등이 있으나, 「愛의 挽歌」는 「白潮」派의 浪漫的 色彩가 濃厚하기 때문에, 또 「피의 舞臺」와 「事件」은 KAPF結成後 강한 目的意識下에서 制作된 作品이라 判斷되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除外시키고, 나머지 5篇에 限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3) 金允植 : 韓國近代文學研究 p. 248, pp. 266~271 參照.

2. 傾向文學의 性格

앞에서 例學한 5篇의 作品을 檢討하기에 앞서, 懷月이 생각하고 있던 傾向文學의 性格을 考察해 둘 必要가 있다. 「薔薇村」과 「白潮」誌에 浪漫的 詩를 發表하던 懷月의 文學觀에 變化가 일어나게 된 原因은 八峰과의 書信交換에서 비롯된다. 日本에 留學中이던 八峰이 當時의 日本을 風靡하던 左翼文學에 感染되어 懷月과 月灘에게 傾向文學에 대한 所信을 傳하고, 이에 同調하여 月灘이 「力の 藝術」을 發表했으며 懷月은 積極的으로 이러한 文學에 呼應하여 나서기에 이른 것이다.⁴⁾

1923年 9月부터 11月까지 金基鎭은 「開關」誌에 「클라르테運動의 세계화」라는 글을 發表하여 「프로」文學의 이데올로기 宣傳의 先頭走者가 되었으며 懷月도 1924년부터 새로운 文學의 擡頭를 力說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懷月의 글 몇 篇을 引用하여 그가 생각했던 新文學創設로서의 傾向文學이란 어떤 性格인가 알아 보기로 하겠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이 資本主義社會에서 오래 동안 苦悶하던 朝鮮을 解放하자! 따라서 그 外皮를 뒤집어쓰고 흐느적거리는 文學을 解放하자! 誇大妄想病에 걸린 文士들은 한가지 遊蕩이라는 避病院에 몰아넣고 오래 동안 偉대한 苦痛에서 짓눌리든 無產的 朝鮮을 解放하며 또한 無產階級의 健全한 文學을 살리기 위해서 建設하자! 社會를 떠나서 살 수 없는 現代生活에는 文學도 生活을 떠나서 價値가 없는 것이 明確하다. 畸形的으로 發達한 部分的 生活을 麻醉시키는 文學은 말고 生活의 水平의 向上을 爲한 民衆의 文學을 建設할 때가 이르렀다.⁵⁾

윗글의 要旨은 資本主義社會에서 오래동안 苦悶하던 朝鮮을 解放시키자는 政治的 目的下에, 힘없이 흐느적거리는 文學에서 解放되어 現實生活에 바탕을 둔 健全한 無產階級의 文學, 즉 民衆文學을 建設할 때가 이르렀다는 말이다. 生活을 위한 文學이니, 民衆生活의 文學이니 하는 語句로 要約되는 이러한 新文學建設의 意志는 自然發生的인 新傾向派 作品들에 比하여 目的

4) 金宇鍾: 「韓國現代小説史」 pp. 198~9

5) 朴英熙: 新傾向派의 文學과 그 文壇의 地位, (「開關」 64號, 1925. 12) pp. 2~3

과 意圖가 보다 積極化된 것으로, 懷月은 「붉은 쥐」(金基鎭), 「망속으로」(趙明熙), 「狂亂」(李益相), 「가난한 사람들」(李箕永), 「殺人」(朱耀燮), 「飢餓와 殺戮」(崔鶴松), 「街相」(李相和·詩), 「戰鬪」(朴英熙), 「땅과먹는 사람들」(朴吉洙), 「늘어가는 무리」(宋影), 「두 젊은 사람」(崔承一) 등을 作品의 例로 들어 可驚할 만한 發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 作品들의 特徵을

……다만 브르즈와文學의 傳統과 典型에서 벗어나와서 새로운 傾向을 보여주었다는 것만은 自信있게 할 소리인 줄로 안다.

一般으로 그 創作의 內面을 보면 遊蕩을 떠나고 情緒至上을 떠나고 壓迫과 擲取의 氣分을 떠나 生活에, 思索에, 解放에, 民衆으로 나아오려고 하는 새로운 傾向은 前無한 新現象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 作品에 나타난 主人公은 모두가 새 社會를 憧憬하는 開拓兒이었으며 그가 부르짖는 宣言은 모두가 生活에 對한 眞理의 啓示였다. 그들은 스스로가 現社會制度에서 苦悶하여 그곳에서 생기는 不安과 暴行에 對한 破壞와 또는 不平을 絶叫하며 따라서 그들은 無產의 朝鮮을 解放하려는 意志의 白熱을 볼 수 있었다⁶⁾

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現實社會制度로 因하여 苦悶하는 主人公들의 社會의 不安과 暴行에 對하여 破壞와 不平을 絶叫하며 無產 朝鮮을 解放하려는 意志를 나타낸 小說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目的으로 小說을 創作하는 文人들은 “無產階級文學은 그 階級과 한가지 움직이지 않으면 아니 되겠으므로 해서 우리도 團結을 必要한다”고 組織의 必要性을 말하면서 한걸음 나아가 “文學뿐만아 머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階級 그것과 生死를 같이 하지 않으면 아니 될”⁷⁾ 것이라고 強調하여 創作外的 政治的 組織 活動까지 要求하는 發言을 한다. 이 글은 1925年 12월에 發表된 것으로, KAPF가 結成된 후 懷月이 中央委員이 된 뒤에 발표한 것이므로 매우 強力하고 露骨的인 政治的 發言으로까지 發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八峰의 影響을 받은 懷月로서는 急進的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正常的의 軌道를 밟는 것으로 看做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懷月은 苦悶하는 無產大衆의 生活을 題材로 하여 無產階級の 解放을 目的으로 하는 小說을 써야한다는 傾向의 文學理論을 가지고 있었음을

6) 上揭書 p. 4.

7) 上揭書 p. 5.

알 수 있다.

懷月은 이와 같은 目的 意識이 강한 傾向文學을 建設하기 전에 準備段階로서 新傾向派의 文學을 設定하고 있다.

新傾向派文學은 어떠한 完全한 體系를 具有한 獨立된 文學이 아니라 目的을 意識的으로 體系를 세우기 爲하여서만 必要한 그 過程에 있어서의 한 必要한 現象的 文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서 新傾向派는 그의 目的하는 境地에 나가게 되면 곧 그 自體가 解體되고 崩壞되고 말 것이다. 다만 新傾向派文學이란 社會的 文學을 建設함에 將次 進行을 어떻게 해야 할 方向을 指示할 따름이다. ……文學上 新傾向派는 眞正한 新興文學을 建設함에 한 準備的 過程임을 다시 말하여 둔다.⁸⁾

위의 引用文에서 懷月이 밝히고 있는 新興文學이란 無產階級の 文學, 즉 社會主義文學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準備過程으로서의 新傾向文學을 別途의 것으로 區分하고 있는 것이다.

貧寒과 苦惱의 生活狀態를 그대로 自然主義의 手法으로 描寫한⁹⁾ 作品을 新傾向派文學作品으로 볼 때 本稿에서 다룬 5篇의 作品을 新傾向派로 보아야 할지 新興文學이라는 「프로」文學으로 보아야 할지는 本稿에서 究明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이다.

目的 意識을 내세우고 作品活動을 한 「프로」文學 以前의 無意識的, 自然發生的 階級文學을 新傾向派 文學이라고 보는 一般의 見解¹⁰⁾를 비롯하여 「프로」文學의 端初로 보는 林和의 생각¹¹⁾ 등 一連의 通說과 同軸인 懷月의 新傾向派에 대한 概念은 經濟的 事情의 推移의 反映이며, 漠然한 反抗意識의 文學¹²⁾으로 規定지을 수 있을 것이다.

뒷날 懷月은 1925年代의 新傾向派文學에 대하여 “한국의 민족 해방을 위하여 日本의 제국주의와 抗爭하려는 意識의 文學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좁은 의미의 無產階級の 文學만이 아니었다.”¹³⁾ 라고 修正 擴大하여 言及하고 있다.

8) 朴英熙: 新傾向派文學과 無產派의 文學, (「朝鮮之光」 64號 1927. 2).

9) 朴英熙: 現代韓國文學史, (「思想界」 66호, 1959. 1).

10) 白鐵의 「國文學全史」 金字鍾의 「韓國現代小說史」 등

11) 林和: 朝鮮新文學史論序說, (「朝鮮日本」 21回)

12) 方仁根: 甲子年小說界一瞥, (「朝鮮文壇」 4호) pp. 163~164.

13) 朴英熙: 現代韓國文學史 7회, (「思想界」 1959. 1).

한편 懷月은,

계급문학에는 그 題材가 자연히 노동자나 농민의 생활에 국한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 생활의 體驗이 없는 作家로는 그 작품에 실감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노동자출신이나 농민출신의 作家가 요구되었던 것이다.¹⁴⁾

라고 말하여 觀念的 理念的 作家가 傾向의 作品을 쓰기 어려우며, 리얼리티가 缺如된 作品을 썼음을 暗示하고 있다.

以上の 概括的 考察에서 懷月이 생각하고 있던 傾向文學의 性格은 生活을 바탕으로 한 無産階級の 文學이며, 新傾向派 文學은 本格的인 階級文學이 擡頭되기 전의 準備過程으로 나온 것으로 新傾向派와 階級文學을 包括하여 傾向文學이라 稱함을 알 수 있다. 本稿에서도 이 包括的 概念으로 이 用語를 使用한다. 그리고 傾向文學은 단순한 階級文學만이 아닌 民族解放을 위한 日帝에 低抗하려는 意識의 文學이었고, 實際 體驗을 바탕으로 하기 전에는 作品에 리얼리티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 作品의 考察(梗概·當時의 評·作品의 特徵)을 통하여 懷月의 傾向小説의 性格을 밝혀보기로 하겠다.

3. 個別 作品考

(1) 「結婚前日」(1924. 5. 「開關」47號)

① 梗 概

가난한 집 딸인 영순은 시골 富者의 아들인 상호와 마음에 없는 결혼을 하게 된다. 돈 3百원을 얻어 쓴 父母가 결정한 일이다. 結婚前日 便紙와 함께 30원을 보내온다. 마음 속으로는 不快했지만 그 돈을 가지고 밖으로 나온 영순은 姨母집에 들러 인사를 한 후, 사고싶은 물건을 마음껏 사고 호사를 해보지만 結婚할 마음은 없다.

동생의 非難도 듣고, 學校 다니던 때의 혜순과의 재미있던 때를 그리워한다. 그날 저녁 音樂會에 간다고 동생과 함께 집을 나온 영순은 혜순의 집을 찾아가 밤늦도록 謀議를 한 후 집에 돌아오지를 않는다.

14) 朴英熙: 現代韓國文學史 7회

다음날, 시골에 있는 新郎집으로 떠나야 할 영순이 돌아오지 않자, 애타게 기다리던 아버지는 '신부 발병, 출발 연기'라는 전보를 친다.

② 當時의 評

이 作品에 對한 評으로 當時의 「朝鮮文壇」에 실린 것을 보면 아래와 같다.

「結婚前日」은 弱者의 悲哀, 貧者의 슬픔이 女性 영순으로부터 圓滿히 發揮되었다. 不合理한 婚姻에 영순의 煩悶은 무럭무럭 나오는 굴뚝의 烟氣처럼 몽클몽클 그려졌다. 그리고 讀者로 하여금 눈물내여 영영 울게 하는 대신 가슴속으로 눈물이 아프게 스며들도록 한다. 모처럼 비단옷을 입고 孀아주머니 집에 갔다가 돌아온 心理—무명옷 때물은 입던 옷을 반기는 描寫는 가장 淨化되었다. 구렁텅이에 빠질듯하여 不安心되는 讀者로 끝내 勝利者인 영순을 볼 때 속이 시원하였다. 비단결 같은 作品이다. 다만 영순 혼자만 活躍되고 다른 人物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것이 單純美는 있으나 심심하다.¹⁵⁾

③ 作品의 特徵

主人公 영순이 돈에 팔려 시집가게 되었으나 끝내 주어진 運命을 따르지 않고 家出한다는 줄거리의 이야기다. 貧者의 悲哀와 抵抗性을 나타낸 作品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作品의 基底에 깔려 있는 感傷性과 因果關係의 不明瞭性은 作品의 主題를 흐리게 하고 있다. 즉 상호에게 시집가기 싫어서 家出한 것인지, 돈에 팔려가는 것이 싫어서 家出하는 것인지, 學窓時節의 親舊와 즐기던 때가 그리워 家出하는 것인지 不分明하다.

作者가 意圖한 것이 貧民의 悲哀였다면 영순의 家庭事情이 充實히 描寫되고 表現되었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引用한 當時의 評中 영순의 心理描寫가 잘됐다는 말은 비교적 正確한 지적이라 생각된다.

傾向의 作品을 쓰고자 한 懷月의 意圖를 尊重할 때 이 作品에는 素朴한 階級意識이 나타나 있는 單純한 作品이라 할 수 있다.

(2) 「二重病者」(1924. 11. 「開闢」 53號)

① 梗概

腦病으로 入院한 윤주는 看護婦 윤경의 慈愛로운 간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윤경의 看護와 投藥 外에는 전부 거절하는 윤주는 윤경과 박

15) 方仁根: 前掲書 pp. 163~164.

의사가 나타나지 않자 괴로워 한다.

그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뺨을 부비는 場面을 보고 괴로워 하는데, 운주가 看護部長과 다투었다고 하며 보따리를 가지고 病室로 밤 늦게 찾아 왔을 때, 이 女子를 위하여 同志들과 罷業하고 나온 出版社와 妥協하고 50원을 先拂받는다. 이는 운경이와 幸福하게 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다음날 美製 현미경을 도난당하고, 박의사와 운경의 행방이 묘연해진다. 여기에 3통의 便紙가 配達되는데, 운경과 박의사, 그리고 出版社 同志들의 편지였다.

운주는 거짓 사랑에 속고, 同志를 배반한 것을 뒤우치나 腦病 때문이라고 돌리고 만다.

② 當時의 評

이 作品에 대한 當時의 方仁根과 月灘의 評을 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方仁根은,

構想, 描寫全部가 統一될 作品이다. 平凡한 듯한데 眞理가 뒤는다. 二重病者가 아니 그 以上 病者란만치 肉의 病, 靈의 病, 愛의 病, 金의 病—들이 버리게처럼 主人公「운주」에게 들어붙었다. ……운경의 一動一靜에 운주는 기뻐다 웃었다하는 그 언저리가 걸으며 속으로 울만치 잘 그려 놓았다. 다만 좀 不自然한 듯한 說教式的 몇 대목이 길어진 것을 缺로 잡겠다.¹⁶⁾

한편 月灘은,

朴英熙氏의 「二重病者」는 作者가 어떠한 무슨 思想을 불뜨려 表現시키려고 努力한 痕跡이 歷歷히 보인다. 허겁제기 사랑으로 因하여 同志를 저버리고 同志에게 쫓김을 당하게 된 것이 이 小說의 重要한 着眼點인 것 같다. ……그러나 모든 描寫와 手法이 부드럽고 圓滑하게 되지 못하였다.¹⁷⁾

③ 作品의 特徵

作家意識은 앞에서 言及한 「結婚前日」보다 分明한 作品이다. 그러나 作品의 構成・事件展開・對話 등, 月灘의 말과 마찬가지로 描寫와 手法이 未熟한 作品이다.

16) 方仁根：前掲書 p. 164.

17) 朴鍾和：甲子文壇縱橫觀，(「開關」54號，1924. 12) p. 117.

主人公의 性格描寫와, 對話中에 나오는 運命論의 展開가 飛躍과 要領不得으로 叙述되어 있다.

看護婦와 主人公의 사이도 不透明하여 腦病患者의 行動과 思考가 너무나 正常人과 같이 나타나 있다.

同志와의 약속을 깨고 出版社와 妥協하는 것도 수궁이 가지 않으며, 돈이 必要하여 出版社에 돈을 請求하자 곧 받았다는 것은 作品展開의 時間을 무시한 것이다.

다만 끝 部分에 가서 同志들을 背反한 일과 그에 대한 苦悶, 그리고 同志의 便紙에 나오는 句節인 “피를 뿜고 生의 전지를 향하고 나아가는 용사(勇士)”라든가 “아! 나는 건전한 생활의 전지에서 쫓기어나고 말았다.” 라는 몇 句節에서 傾向의 意圖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 作品은, 作者의 意圖가 앞서서 作品으로 昇華되지 못한 傾向의 色彩가 露出된 作品이라 할 수 있다.

(3) 「戰鬪」(1925. 1. 「開關」55號)

① 梗概

가난한 집 아이인 순복은 學校를 中斷하고 만주장사를 한다. 남의 업신여김을 마음 속으로 느끼고 있는 순복은 富者집 아이인 기복이의 놀림을 받는다.

마침내 순복이와 기복이는 싸움을 하게 되고, 박칠성이 가담하여 富者집 아이들과 어른에게 對항을 한다. 김순복, 박칠성, 정애 세 사람은 同志가 되고, 이들에게는 「소년불운단」이란 이름이 붙게 되고, 경찰에서는 數百數千원의 돈으로 수십명의 순사를 비밀히 꾸며 이들을 잡을라고 하기에 이른다.

② 當時의 評

이 作品에 대한 當時의 八峰의 評은 다음과 같다.

우려들은 이 作品에서 作者가 暗示하고자하는 이러한 여러가지 사실을 指摘할 수가 있다. 卽 프롤레타리아의 아이는 感情이 純正하고 率直하고 反抗心이 많고 團結되기가 쉽다는 것들이다. 프롤레타리아의 아이들이 돈 하나가 있다는 것만을 가지고 자기들을 업수이 여기고 비웃는 부르조아乃至 프티 부르조아의 家庭의 아이들을 얼마나 憎惡하느냐 그리고 이 憎惡의 念은 階級意識을 構成하여서 똑 같은處

地에 있는 同類들은 合力하여 가지고 自己를 비웃고 업수이 여기는 對手에게 挑戰하기를 얼마나 굳세게 하느냐——하는 것을 暗示하고서 階級鬭爭을 肯定하였다……何如튼 이 作品은 조금 더 洗鍊되고 整頓되어야만 할 缺點을 가진 채로 그대로 新年劈頭의 創作界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作品이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¹⁸⁾

③ 作品의 特徵

이 作品은 懷月의 傾向小說中 가장 나은 作品에 屬한다.

지나친 誇張 내지 說敎的인 地文이 도처에 깔려 있으나, 主人公을 少年으로 設定했다든가, 순복이의 心理描寫를 비교적 차분하게 했다든가 하는 것은 讀者의 感動을 일으키는 效果를 어느 정도 거두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金允植教授는 “心理描寫가 상당히 치밀하게 드러남을 본다.”¹⁹⁾라고 말하고 있지만, 순복이의 心理變化가 誇張的인 점이 있음을 不認할 수 없다.

主人公이 만주장수를 하게 된 原因을 “이것은 아버지의 허물도 아니고 어머니의 허물도 아니고 나의 게으름도 아니다”라고 하여 社會 階級の 不條理에 淵由함을 깨닫게 되는 過程도 作爲的인 面이 없지 않다.

다만 여짓것의 作品(「結婚前月」과 「二重病者」)이 不透明한 主題였음과 作家意識의 露出이 심했음을 생각할 때에 作品의 形象化에서는 進一步한 作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貞順의 설움」(1925. 2. 「開關」56號)

① 梗概

貞順은 남의 집 下女로 행랑에서 혼자 居處한다. 病이 들어 사흘 동안이나 누워 있었다. 이를 안 主人男子가 의사를 다려와 診察을 시킨다. 의사의 손이 貞順의 얼굴에 닿자 부끄러움을 느끼며 마음 속으로 의사를 戀慕하게 된다.

지어온 藥을 먹은 貞順은 病이 훨씬 나아지자 김의사를 보고 싶고 그리워 病院으로 찾아간다.

病院에서 김의사에게 무안을 당한 貞順은 집으로 돌아오다 개똥어멈에게

18) 金基績：一月創作界總評，(「開關」，56號，1925. 2) pp. 2~4.

19) 金允植：「韓國近代文學研究」p. 277.

嘲笑와 멸시를 당하여, 의사를 思慕하던 것의 失敗보다 「행낭년」이라는 멸시의 소리가 죽기보다 싫어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을 나온다.

② 當時의 評

이 作品에 대한 當時의 月灘의 評을 보면 다음과 같다.

懷月君의 小説은 四五篇 보았는데 以前 것도 어떤 데 못비한 點이 많으나 技巧가 좀 洗鍊이 덜되었다 할 수 있었읍니다. 한데 이번 小説(貞順의 실음)은 아주 洗鍊된 것으로 믿읍니다. 技巧라거나 描寫가 以前에는 보지 못한 點이 많아요. 만 사람이 쓴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또 들어 말하면 貞順이라는 主人公에 對한 作者의 態度라거나 其外 모든 것이 그야말로 훌륭한 完成品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런데 흠점을 들 것 같으면 作者가 小説에 對하여 誇張하는 罪단이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외다.²⁰⁾

③ 作品의 特徵

이 作品은 貞順이라는 下女, 즉 無産階級의 한 女性을 登場시켜 人間以下의 階級에 대한 悲哀를 나타낸 作品이다.

貞順이 김의사를 思慕하게 되는 것은 人間의 過情에 굶주렸던 때문이며, 또한 處女로서 異性에 눈뜨게 된 것으로 作品上 誇張이라 볼 수 없다. 다만 평소에도 늘 괴롭히던 개똥어멈의 멸시하는 말투에서 悲哀를 새삼 切感하고 갈 곳도 없는데 보따리를 싣는 것은 약간 誇張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作品들 보다 解說的 說敎的 地文이 拂拭되었으며 具體的으로 主人公 貞順의 心理描寫와 行動으로 劇化시켰다는 데에서 小説美學 構築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貞順의 心理描寫는 매우 緻密하며 비교적 確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5) 「사냥개」(1925. 4. 「開關」 58號)

① 梗概

妾을 다섯이나 얻은 정호 영감은 인색한 富豪다. 다섯째 妾도 3千원을 주기로 하고 맞아들였으나 첫날을 지낸 후 닳새가 지나도록 돈을 주지 않자 달아나 버린다.

넓은 사랑에서 혼자 자다가 무거운 침묵에 잠긴 밤에 별안간 짚어대는 사

20) 朴鍾和: 朝鮮文壇合評會二月創作總評, (「朝鮮文壇」 1925. 3) pp. 117~118.

냥개 소리에 깨어나 恐怖 속에 빠진다.

석달 전에 겪은 두려운 경험은 남루한 옷차림에 손에 칼을 든 사나이가 금방이라도 나타나 돈을 내라고 脅迫할 것 같다. 오늘 눈을 사고자 銀行에서 3萬원을 찾아온 것이다. 도망간 다섯째 쫓도 칼을 들고 돈을 내라고 달려드는 것 같은 幻想에 빠져든다. 기부금을 받으러 왔다가 사냥개에 쫓긴 사람들도 몰려 올 것 같다.

꿈처럼 잠을 못 자고 귀를 잡는 개의 소리에 정호는 점점 心理的 壓迫을 받다가 돈이 든 金庫를 꺼내 들고 안채 큰댁에게 가고자 방밖으로 나온다.

배고파 잠을 못자던 사냥개는 주인을 몰라 보고 달려든다. 정호의 목덜미를 물어뜯는 사냥개는 오랫동안 피맛을 보고 달아나 버린다.

② 當時의 評

이 作品에 대한 當時「朝鮮文壇」合評會에서 評한 白華 梁建植의 評을 보면 다음과 같다.

階級爭鬪이니 資本家니 그것은 말고 全篇을 보면 그렇게 훌륭한 創作이라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냥개가 主人을 물어죽인다는 데 矛盾이 있습니다.²¹⁾

위의 梁建植의 評 外에도 憑虛, 春海, 想涉의 評도 있으나 여기서는 省略하기로 한다. 다만 白華의 위의 評으로 해서 懷月은 「朝鮮文壇」合評會에 對한 所感²²⁾이라는 「開闢」誌의 特輯에서 合評會의 不誠實, 無責任함을 非難했었다는 사실은 밝혀 둔다.

한편 八峰의 評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于先, 健實한 作이라고 나는 말하여 둔다.

그러나, 나는 作者에게 말한다. 이 두 개의 用意〔筆者注: 사냥개가 主人을 물어 죽이는 아이로니칼한 悲劇과 노래의 경지에서 解放된 개의 生活의 寓意的 暗示〕를 가지고 이 作品을 썼다할진대 그 두 개의 用意中 그 後者인 사냥개에 關한 說明과 暗示는 極히 貧弱하다고, 讀者는 非常히 注意하여 이 作品을 읽지, 아니하고서는 그 寓意를 發見할 수가 絶대로 不可能하다. 그리고 主人公 正호의 心理를 描寫함에 있어서 너무도 釋氣가 있다. ……요컨대 이 作品은 習作의 難點을 가지고

21) 「合評會」(「朝鮮文壇」1925. 5) p. 118.

22) 朴英熙: 「眞實을 잃어버린 合評」(「開闢」1925. 6) pp. 101~104.

있으나 그러나 健實한 사랑할 만한 作品이다. 이 作者에게 앞으로 더 充實한 努力과 健康性을 求한다.²³⁾

③ 作品의 特徵

이 作品은 여러 가지 面에서 虛點을 가지고 있다. 즉 사냥개를 番犬으로 쓴 사실과 키우던 개가 主人을 습격한다는 不合理性, 개가 짖는데도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다는 점 등은 납득되지 않는 構成上의 虛點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主人公 正호의 지나친 恐怖心理는 作爲的이며 誇張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作品末尾에 붙은 蛇足 같은 解說은 이 作品에서는 玉의 티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地文 도처에서 머리를 들고 나오던 作爲의 發言이 사라졌으며, 寓意的手法으로 노예적인 生活을 하는 無產階層을 사냥개에 비유하여 具象化시킨 것은 手法上의 發展的인 面이라 할 수 있다.

4. 結 論

本稿에서는 「開闢」誌에 發表된 懷月の 小説中 KAPF結成 以前의 5篇의 作品을 中心으로 懷月の 傾向小説의 性格을 考察하였다.

懷月은 作品의 美學的 形式보다 內容을 더 重視하여 “무엇을 發表하려고 努力한 精神”²⁴⁾을 強調한 作家였지만, 本稿에서 다룬 作品들도 이런 作家의 意識에서 制作된 作品임을 確認할 수 있었다. 단순한 自然發生的 無意識的, 漠然한 作品이라기 보다는 作家의 意圖가 先行되어 創作된 作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意味에서 本稿에서 다룬 懷月の 小説은 新傾派 作品이라기 보다는 傾向小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懷月の 5篇의 小説中 「貞順의 설움」 「사냥개」가 小説美學的으로 볼 때 가장 나온 것 같지만, 一般的으로 誇張性・觀念性・作爲性 등이 露出되어 있어서 當時(1924~5年度)에 發表된 東仁, 羅彬, 憑虛, 曙海 등의 小説과 比較할 때 작품 水準上 상당한 拒離感을 發見하게 되는 것이다.

23) 金基鎭：新春文壇總觀，(「開闢」1925. 5) pp. 2~3.

24) 朴英熙：創作批評과 評者，(「開闢」1925. 1) p. 91.

作品 內容上으로는 階級意識을 浮刻시키고자 한 意圖는 충분히 感知되지
만 小說로 形象化시키는 技巧의 未熟으로 成功을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뿐만 아니라, 그는 中産層 家庭에서 자라 徹底한 階級意識을 體驗하지도
못했으며, 따라서 作品에 나타난 이런 意識도 觀念的인 것의 範疇를 벗어나
지 못하고 만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懷月の 小說에는 所謂 心理描寫 部分이 많은데, 역시 想像力을 바탕으로
한 浪漫的 色彩를 逸脫하지 못하고 있는 觀念的 抽象性을 띠고 있는 部分이
다.

題材選擇의 限界성과 目的意識의 과잉, 그리고 結構上의 技法 未熟은 生
硬한 觀念의 露出이라는 結果를 招來한 것이라고 생각된다.